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온 세월이 아름다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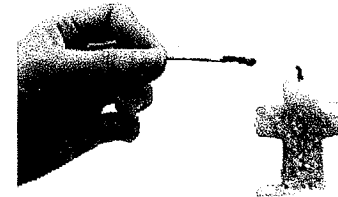
유안진

살아온 세월이 아름다웠다고  
 비로소 가만가만 고덕이고 싶습니다.  
 황금저택에 명예의 꽃다발로 둘러 쌓여야만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길지도 짧지도 않았으나 걸어온 길에는  
 그렇게 찍혀진 발자국들도 소중한고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주는  
 사람과 얘기꺼리도 있었노라고  
 작아서 시시하나 안 잊히는 사건들도  
 이제 돌아보니 영원한 느낌표가 되어 있었노라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들은 아름답고 아름다웠노라  
 앞으로 절대 초조하지 말며  
 순리로 다만 성실을 다하며  
 작아도 알차게 예쁘게 살면서  
 이 작은 가슴 가득히 영원히 느낌표를 채워 가자고  
 그것들은 보석보다 아름답고 귀중한  
 우리의 추억의 재산이라고  
 우리만이 아는 미소를 건네주고 싶습니다.  
 미인은 못 되어도 일등은 못했어도  
 출세하지 못했어도 고루고루 갖춰놓고 살지는 못했어도  
 우정과 사랑은 내 것이었듯이  
 아니 나아가서 우리의 것이었듯이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한다.  
 그대 내 가슴에  
 영원한 느낌표로 자욱져 있듯이 나도 그대  
 가슴 어디에나  
 영원한 느낌표로 살아있고 싶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2월 6일
☎369-5077/525-3858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수업

미상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 놓으리이까?”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새겨 뉘어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빌립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날 건가요?”  
 그리고 가롯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우셨습니다.



◀그뎨 그랬지▶ 소금 광고 “한주소금”  
 “이제 뒷박소금을 먹을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이야 의례 포장된 소금을 사다 먹지만 예전에는  
 소금이나 쌀은 뒷박이나 말로 사다 먹는 줄 알았습니  
 다. 수북히 쌓았던 쌀이나 소금을 가게집 주인이 동  
 그런 막대기로 싹 깎을 땐 웬지 야박한 인심으로 보  
 였습니다. 사기그릇에 담아서 찬장 속에 올려있던  
 “곤소금” 통. 세개의 손가락으로 적당히 집어 넣어  
 도 간을 기막히게 맞추어 내던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  
 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남편은  
 아내가 청소를 깨끗하게 못해놔도  
 나중에 몰래 마무리를 한다  
 그렇지 않은 남편은  
 아내가 청소를 잘 해놔도  
 트집을 잡으려고 뒤지고 다닌다

◀좋은 아내▶  
 좋은 아내는  
 화장실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재미있는 잡지를 가져다준다.  
 그렇지 않은 아내는  
 남편이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걸 눈뜨고 못 본다.  
 회사 가서 싸라고 소리 지른다.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 (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 (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 (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 수요일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 금 6:00 | 청년부: 토 저녁 4시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응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1(시 95)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일학교 Sunday School		아동부
찬송 Hymn	21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재영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3:1-15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은십자가 성가대 (1남여선교회)
설교 Sermon	『예수를 만난 사람들(3)』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61장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2월의 예배위원◆

### ◆2월의 교회력◆

일자	기도	헌금위원	주방	은십자가
6	이재영	고성일	5구역	1남여
13	장현중	권영희	6구역	1,2구역
20	정덕수	권오걸	학생부	학생부
27	정희자	권용일	7구역	3,4구역

주 일	예배와 모임
6	사순절시작(9) 구역예배(11)
13	믿음의어머니기도회(15)
20	식사친교주일
27	이삭줍기주일 선교회.당회

- <갈보리교회 방침> 『구역예배에 대하여』
- (1) 구역예배시 식사는 나누지 않습니다(특별한 상황은 예외)
  - (2) 알코성 음료를 나눌 수 없습니다.
  - (3) 구역예배는 구역식구와 교우를 위한 중보기도를 중점으로 갖습니다.
- 부활절 봉헌 성경쓰기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범위> 마태복음  
\*올해부터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여기며 개인 소장을 위한 책자로 제본하겠습니다. 말씀을 직접 내 손으로 쓰는동안 말씀으로 인해 내 삶과 생활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필사하겠습니다.  
\*안내석에 준비된 용지를 사용하시고 참여 교우의 성함도 기록해 주십시오.
  -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9일(수) ~ 3월26일(토)>. 40일간.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인 사순절(Lent)기간입니다.  
성경말씀을 쓰는 사순절, 그래서 경건함을 표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기구역예배 <금요일(11일) 저녁7:30>. <장소>: 인도자 가정  
\*올해 첫 구역 모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구역장 선출을 부탁드립니다.
  - 권사회 모임: Tea Time 후 유아실
  - 1남선교회 부부동반 “설날맞이 야유회” <일시> 10일(목) 오전 10:30. Long Bay.  
\*교우가정에 방문중인 60세 이상 되신 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장소안내Map 및 문의, 연락 : 민병구 집사(273-2299). 박상옥 집사(478-2611)
  - Tsunami 참사를 돕기위한 "TSUNAMI 헌금"(예고): 다음주일(13일)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졌기에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린자녀들도 Gold Coin으로 동참케 하여 주십시오
  - 교회달력: 1가정 1부  
\*지난 주, 처음으로 만든 우리교회 달력이 모자랐습니다. 못 받으신 교우와 Shop, 사무실에 필요한 교우를 위해 더 준비하였습니다 <안내석>

### ◀착한 시인▶ 편지

운동주

그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 만 쓰자  
긴긴 사연을 줄줄이 이어  
진정 못 잊는다는 말을 말고  
어쩌다 생각이 났었노라고 만 쓰자

그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그냥 긴 세월이 지났노라고 만 쓰자  
긴긴 잠 못 이루는 밤이면  
행여 울었다는 말을 말고  
가다가 그리울 때도 있었노라고 만 쓰자

편지 '편지'라는 말을 들으면 따사로운 햇살 받으며 길게 굽어 있는 고향 시골길과 함께 아름다워 더 슬픈 느낌으로 변져옵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 모두를 편지 한 장속에 담아 보내고는 괜히 보냈다는 부끄러움과 기다리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던 날들, 이제는 보내줄 이 아무도 없지만 나도 펜으로 푹푹 눌러 쓴게 언제였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